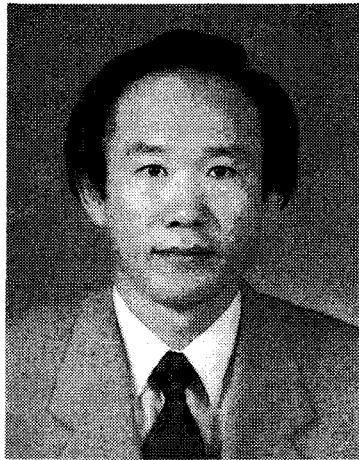


IMF시대에 필요한 양봉인의 자세

10년후 무한경쟁시대 대비해 밀원수부터 가꾸자



한국양봉축협 조합장 조상군

나라 경영수익도 적어져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된다.

이번 우리 경제가 이모양이 된 것은 이따 저따 많은 이유를 달지만 우리들이 인식치 못한 사이에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번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투명한 선진사회로 탈바꿈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난국 시대에 우리 양봉업계에서도 투명한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결국 우리의 치부도 머지 않은 장래에 굶아 터지리라 생각된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전략한 것처럼 우리 양봉업계도 투명한 상품을 생산해내지 않고서는 앞으로 양봉업계만이 다시 겪을 제2의 IMF 시대가 오리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 양봉인들은 전체 양봉업계를 생각하여 그간의 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주기 바란다.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정책에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급속히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 양봉업계에도 투명성을 흐리게 하는 양봉인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뿌리 뽑아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본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용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양봉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량품이나 생산판매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너나할 것 없이 양봉인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된다.

수백여원의 광고료를 들여서 TV 광고를 한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을 씻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양봉인 전체가 환골탈퇴하여 투명한 양봉산물을 생산판매 할 때만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회 온 구석이 명퇴다, 조퇴다 하여 실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 그래도 양봉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입은 떨어지더라도 명퇴·조퇴를 걱정할 염려없이 늙어지도록 자연과 벗삼으며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벌꿀의 품질에 대해 매스컴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는 사이에 외국의 값싼 벌꿀이 우리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 염려된다. 그때가서 우리 양봉업은 현재의 IMF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재기불능의 양봉산업으로 전락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양봉협회나 양봉조합이 나서서 양봉업계를 이끌어가는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도 한계가 있고 양봉인 전체가 동참해 주어야 한다.

경쟁력있는 영원한 양봉업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즈음 농한기에 한가하게 오락이나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1년에 최소한 1

주일 정도만이라도 밀원식물을 심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산이 없으면 남의 산이건 국유림이건 목표로 심는 것이 불가능하면 씨앗으로 남모르게 심어 퍼트릴 수도 있다. 아카시아 이외에는 실령 산주가 안다고 해도 경제수종을 심어 가꾸지 않는 방치된 산에 나무를 심어주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금은 북한땅이 되었지만 황해도 어느 지역에는 수유나무가 한 지역에 집단으로 심어져 있었는데 해방전에 매년 벌 한차(100군)에 15드럼 정도씩 채밀했다고 한다. 우리가 15~20년 전에 집주위 마를 근처에 수유나무를 충분히 심어 놓았더라면 지금의 무밀기인 7·8월 사이에 매년 15드럼 정도의 벌꿀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때 현재의 양봉업계로 보아 2년간의 수입액과 맞먹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심어서 언제 소득보겠느냐고 반문할 양봉인이 많겠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 10년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밀원수를 심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같은 지역 양봉가끼리 친목회가 대부분 결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친목단체를 통해 밀원수 심기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 면 생산적이며 더욱 뜻 깊은 돈독한 친목단체로 발전할 것 같다.

필자는 과거 코스모스 씨앗을 1년에 1~2 가마씩 매년 심어서 500군 가까이를 가을철 보조 화분원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으로 보건대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밀원수를 추천해 본다면 봄철의 벗나무, 집 주위에 높은 산이 있는 분은 산중턱에 아카시아를 심는일, 아카시아 이후 때죽나무, 개울나무, 윗나무, 가중나무(개가죽나무), 수유나무, 엄나무, 회화

나무, 피나무, 붉나무 등을 들 수 있겠다.

속근초인 체키화, 연백초도 좋은 밀원에 속하며 뚝방이나 공한지에 달맞이를 심어도 매년 잘자라 보조 화분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주변에 흔한 밀원수종을 찾고 지역조건에 맞게 심어놓은 밀원수 양을 늘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2004년 이후에는 관세가 상당폭으로 줄어들다가 없어지게 될 관인데, 그때가서 진정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이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의 양봉업 직장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밀원수부터 심고 가꾸어내야 한다. 이런 정신무장이 없고서는 진정한 양봉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밀원이 없으면 양봉이 성립될 수 없으며 정부에서 밀원식물을 심어 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국가 예산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노력할 때만이 정부지원이 뒤따라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밀원이 풍부해야만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제아무리 수입꿀이 들어와도 염려할 필요없이 영원한 양봉업 직업인으로 남을 수 있다. 또한 IMF 한파같은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60년대에 사방조림용으로 심어 놓은 아카시아 덕택에 현재 우리들의 양봉업계가 존속되고 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산림의 지리적 조건을 잘 활용하고, 각 양봉농가가 1년에 1주일씩의 시간을 내어 밀원수를 심는 노력에 전국 4만3천여 양봉농가들이 동참한다면 20년 후에는 틀림없이 경쟁력있는 양봉업국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어보신 양봉인은 지금부터라도 지나 다니는 들판길에서 나무가지에 허영계 씨앗이 많이 매달려 있는 가중나무(개가죽나무)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씨앗을 따다가 산 아래 쪽에 뿌려 심어놓으면 10년 후에는 향기가 강한 벌꿀을 채밀할 수 있는 좋은 밀원이 될 것이니 실천해 보기 바란다.

영업 안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다량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입개방시대의 벽을 넘으시려면 저희 회사를 꼭 찾아주시기를 거듭 원하는 바입니다. 힘껏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럼(중량 약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봉(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신·구형)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 (02) 481-3697~8. (夜)441-2780, FAX (02) 442-9426
경남지역 연락처 및 집하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
「영농법인 지리산 벌꿀」 ☎ (0596) 73-7366

벌꿀수매

그동안 (구)유달양봉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양봉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고향전통식품은 13년간 양봉산물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양봉가 여러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벌꿀을 현금수매할 계획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바랍니다.

벌꿀 현금수매 ☎ (0342) 716-5000~1
(구)유달양봉

내고향전통식품 대표 황성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98 - 6
약도 : 판교IC에서 수원간 국도 4.5km 지점